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소식

Autumn. 2016. Vol.18



Contents

Autumn. 2016. Vol.18

04

주요행사

- 긴 여운을 남긴 무대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 선율이 흐르는 여름밤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희망찬 미래를 예시하는 축제의 장
-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 봄날의 따스한 현대음악
- STUDIO 2021
- 부드럽고도 강렬한 현악의 밤
- SNU 스트링 앙상블
- 아름다운 현악기의 대화 속으로
- Spirit of SNU Strings
- 다채롭고 자유로운 음악적 소통
- SNU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 봄바람을 적시는 전통음악의 향연
-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14

리뷰 & 리포트

- 서울대 가족과 관객주인을 위한
- 화요음악회
-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섬
- 예술주간
- 제 10회 대원음악상 수상

18

인터뷰

- 감동, 그 시작으로
- 기악과 김귀현 교수
- 음악적 자기이해 그리고 조화
- 기악과 브루스 배리 교수
- 다섯 색깔이 하나로
- 학생연주팀 Libera Brass Quintet

24

콘서트를 찾아서

- 진정한 표현을 위한 끝없는 노력
- 전승현 교수 베이스 리사이틀
- 아름다운 순간들을 공감하는
- 윤혜리 교수 플룻 독주회

28

연구프로젝트 탐방

- 서양음악연구소 학술 세미나
KSMPC 학술 세미나
- 동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워크숍
동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학술 세미나

32

환영합니다

- 빈 국립음대
- 태국 PGVIM
- 버밍엄음악원

34

감사합니다

- 오페라연구소 무대의상 기증
- 고 김일규 단장
- 음악대학 발전기금 기부
- 신수정 전 학장
- 발전기금 명단

36

축하합니다

- 2016학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04

Main Event

- SNU Symphony Orchestra
- SNU Philharmonic Orchestra
- SNU Wind Ensemble's Regular Concert
- STUDIO 2021
- SNU String Ensemble
- Spirit of SNU Strings
- SNU Symphonic Band's Regular Concert
- Korean Music Department's Regular Spring Concert

14

Review & Report

- SNU Tuesday Concert
- Art Space@SNU
- 10th Daewon Music Awards Winners

18

Interview

- Retired Professor Kwi-Hyun Kim
- Newly Appointed Professor Bruce C. Barrie
- Student Performers: Libera Brass Quintet

24

Visiting Concert

- Professor Seung-Hyeon Jeon's Bass Recital
- Professor Hye-Ri Yoon's Solo Flute Recital

28

Research Project

-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Seminar
- Academic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 Renowned Researcher's Special Lecture
-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Conference

32

Welcome

-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
- Thailand PGVIM
- Birmingham City University

34

Appreciation

- In Memorial : The Head of Opera Permanent Stage
- Il-kyu Kim
- Donation for Development Fund
- Soo-Jung Shin (Former Department Dean)
- The List of Donators for Development Fund

36

Bravi! Prize Winners

- 1st Semester 2016 Music Competition Winners



긴 여운을 남긴 무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난 6월 2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3번이 울려 퍼졌다. 특히 이번 연주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하여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음악회의 의미를 더했다.

말러 교향곡 3번은 작곡가 본인이 “이 작품은 음악이기를 거부한다. 자연의 소리를 담은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말러의 생각은 이 곡의 각 악장에 붙어 있는 천지 창조 순서로 된 표제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말러 교향곡 3번은 ‘천지창조 교향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호른의 유니즌으로 시작된 말러 교향곡 3번의 1악장은 지휘자 임현정의 지휘봉 끝에서 흘러나왔다. 해오름극장을 가득 채운 사운드는 청중들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다. 오보에의 독주로 이루어진 2악장의 주제 선율은 한적하면서도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3악장은 멀리서 들리는 포스트 호른 소리로 활기찬 느낌이 들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인용한 4악장 도입부는 관현악 반주부터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의 노래까지 모든 것이 섬세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이번 연주회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은 긴장한 낯빛으로 입장하였으나 5악장이 시작되자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이 서울대 성악과 여성 합창단과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었다. 현악기의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였던 6악장은 팀파니와 함께 긴 여운을 남긴 채 장대하게 마무리되었다.

긴 연주의 여운을 깨트린 것은 끝내 터져 나온 관객들의 박수갈채였다. 인터미션 없이 한 시간 반이 넘는 말러 교향곡 3번 전 악장을 연주한 지휘자 임현정과 솔리스트 백재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성악과 여성합창단과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에게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On June 24th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SNU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Professor Hun-Joung Lim, performed Mahler's Symphony No. 3. The children's choi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and the SNU voice department's female choir collaborated in this concert, making this event particularly special and significant.



선율이 흐르는 여름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선선했던 5월 20일 금요일의 여름 밤,
예술관 콘서트홀은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를 보러 온 관객들로 가득 찼다.

객석의 기대감을 채우듯 멀리서 들려오는 첫 곡은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이었다. 김덕기 교수 지휘하에 연주된 「탄호이저」 서곡의 ‘순례의 합창’은 장엄하면서도 숭고한 힘이 느껴졌다. 이 장엄한 합창은 현악기의 고뇌 가득한 주제에 의해 정점을 이룬 뒤 같은 주제와 함께 다시 멀어져 갔다. 이후 ‘베누스 동기’와 ‘인내의 동기’가 연달아 등장하는 방식으로 탄호이저의 갈등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광란의 소용돌이가 잦아든 후 귀에 익숙한 ‘순례자의 합창’ 선율이 재현되고 웅장한 피날레를 맞이했다.



이어서 연주된 작품은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으로 슈만이 행복한 신혼을 보낼 때 만들어진 곡답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환희로 가득 차있었다. 1악장은 금관악기로 시작되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면 2악장 도입부는 현악기 활을 따라 서정적인 선율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두 개의 트리오로 이루어진 론도 형식에 가까운 5부 형식을 가진 3악장과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찬 코다로 막이 내렸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정적인 지휘자에게 그리고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On a surprisingly chilly summer Friday evening on May 20th, the SNU concert hall was filled with an excited audience eager to see a concert by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Professor Docki Kim conducted pieces by Wagner and Schumann in this performance.



희망찬 미래를 예시(豫示)하는 축제의 장 2016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5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막을 올렸다.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번스타인, 바흐 등의 작품부터 함경도 민요까지 다채로운 구성의 여섯 곡이 연주되었다.

첫 무대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중 ‘서곡’으로 경쾌한 리듬과 서정적인 선율이 대조를 이루며 매력적인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였다. 두 번째 무대였던 그레인저의 「링컨 셔 꽃다발」은 영국 민요를 토대로 한 모음곡으로, 이번 연주에서 6곡 전곡이 연주되었다. 이어진 「쇼 보트」 중 ‘Ol’ Man River’와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은 베이스 전승현 교수의 감미로운 음성과 윈드 앙상블의 연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음향을 자아냈다. 2부에서는 카렐후사의 작품인 「Les Couleurs Fauves」가 연주되었다. ‘지속되는 종소리’와 ‘의례를 위한 춤 가면’의 두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악기와 타악기의 호흡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마지막 무대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본래 오르간을 위해 작곡된 원곡을 관악합주곡으로 편곡한 버전이 연주되었으며, 웅장하고 풍부한 관악기의 울림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성공적으로 연주해낸 단원들은 마지막 앵콜 무대까지 마친 후에야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띠었다. SNU 윈드 앙상블은 1961년 창단된 이후 교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공연장을 가득 매운 관객들의 힘찬 박수소리처럼, 관악계에 젊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SNU 윈드 앙상블의 미래에도 눈부시게 힘찬 도약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May 2nd, the SNU Wind Ensemble began their first concert of the regular series. Professor Young-ryul Kim conducted a varied collection of six pieces from Bernstein to Bach, to Hamkyungdo folk music.



봄날의 따스한 현대음악 STUDIO 2021

2016년 5월 9일, 봄을 맞는 작곡과의 첫 번째 행사로 'STUDIO 2021'의 막이 올랐다. 음악대학 콘서트홀에는 현대음악 시리즈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연주는 STUDIO 2021의 상주 단체인 'ENSEMBLE 2021' 팀과 함께했다. ENSEMBLE 2021은 권영인(fl.), 권그림(vn.), 나윤아(vn.), 이수민(va.), 이정란(vc.), 손은정(pf.), 전지훈(pf.) 등 젊은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어법이 공존하는 현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많은 청중들과 공유한다는 모토 하에, 이제는 고전이 된 20세기 작품부터 이제 막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작품에 이르기까지 현대음악의 세계를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공모에 선정된 크리스토퍼 브람멜드(Christopher Brummel), 나석주의 곡이 연주되었다. 권그림(vn.), 나윤아(vn.), 이수민(va.), 이정란(vc.)이 크리스토퍼 브람멜드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The Spaces Between」을 연주했고, 권영인(fl.)이 나석주의 노래하는 여성 플루트 주자를 위한 「인어의 노래」를 연주했다.

세 번째 곡은 프랑코 도나토니(Franco Donatoni)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필리」였다. 권영인(fl.), 김기경(pf.)이 연주했다. 1부의 마지막 곡은 페테르 외트베시(Peter Eötvös)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코스모스」였는데, 전지훈(pf.1), 박경선(pf.2)가 연주했다.

2부에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현악 6중주를 위한 「정화된 밤」이 연주되었다. 「정화된 밤」은 쇤베르크가 독일 시인 리하르트 데멜(Richard Dehmel)의 연작시집인 「여인과 세계(Weib und Welt, 1896)」 가운데 '두 사람'(Zwei Menschen)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나윤아(Vn.1), 권그림(Vn.2), 이수민(Va.1), 김다은(Va.2), 이정란(Vc.1), 장하얀(Vc. 2)이 연주했다.

이번 연주를 통해, 현대음악의 깊이 있는 이해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있을 10월의 연주도 기대해본다.

The SNU New Music Series 'STUDIO 2021' began its 2016 spring season, starting with a concert that consisted of pieces by Brummel, Sukju Na, Donatoni, Eötvös and Schoenberg at the SNU Concert Hall.



부드럽고도 강렬한 현악의 밤 SNU 스트링 앙상블

실록이 더욱 푸른 빛을 머금어 가는 초여름 저녁, 5월 23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창우 지휘자가 이끈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합주곡 두 곡과 협주곡 세 곡이 연주되었다.



Amongst the refreshing, blossoming colors of early summer, the SNU String Ensemble performed two ensemble pieces and three concertos (or a concerto, total three pieces) by conductor, Chang-woo Kang at the SNU Concert Hall on May 23rd.

첫 번째로 연주된 작품은 엘가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으로, 현악기의 따뜻한 음색이 잘 드러나는 무대였다.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제미니아니의 「콘체르토 그로소 '광기」로, 바이올린에 고동휘(기악 16), 정호일(기악 16)이 솔로 연주를 맡았다. 세 번째 무대는 보테시니의 「멘델스존 풍의 콘체르토」로 4학년에 재학중인 강성준(기악 13)이 더블베이스 협연을 맡았다. 안정감과 강렬함을 모두 갖춘 협연자의 뛰어난 기량과 부드럽게 감싸 안는 현악 앙상블이 조화를 이루었다.

네 번째 무대는 브리튼의 「눈물」로, 비올라 협연에는 송가은(기악 14)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 섬세한 연주로 공연장을 압도하였다. 마지막 무대는 블로흐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와 피아노 오블리가토」가 연주되었다.

현악기가 가진 풍성한 음향적 특징이 극대화되어 표현되었고 모든 연주자가 고도로 몰입하여 흡입력 있는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아름다운 현악기의 대화 속으로 Spirit of SNU Strings

2016년 4월 24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Spirit of SNU Strings의 연주가 열렸다.



On April 24th, the beautiful sound of strings was heard in the IBK hall at Seoul Art Center. It was the 5th concert of the SNU String Ensemble; the performance consisted of Ravel and Mendelssohn's String Quartet and Brahms's String Sextet, pieces that captivated the delighted audience.

첫 번째로 연주한 작품은 라벨의 「현악사중주 F장조」였다. 제 1 바이올린 손민지(기악 13), 제 2 바이올린 김지용(기악 15), 비올라 정승아(기악 15), 첼로 남아연(기악 14)이 연주했다. 라벨의 유일한 현악 사중주인 이 곡은 대표적인 그의 초기 작품으로, 현악기 네 대의 조화로운 소리가 돋보였다.



두 번째로는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A단조」였다. 이 곡은 멘델스존이 18세에 작곡했는데, 제 1 바이올린에 김은지(기악 14), 제 2 바이올린 신동찬(기악 14), 비올라 송가은(기악 14), 첼로 강민지(기악 14)가 연주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브람스의 「현악육중주 1번 B♭장조」였다. 제 1 바이올린 이경선 교수, 제 2 바이올린 박강현(기악 10), 제 1 비올라 최은식 교수, 제 2 비올라 윤유리(기악 13), 제 1 첼로 이정란, 제 2 첼로 강예주(기악 14) 연주했다. 학생들이 연주한 두 곡과 달리, 마지막 곡은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연주했다.

학생들만이 연주한 앞 두 곡과는 달리, 마지막 곡은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연주했다. 현악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Spirit of SNU Strings의 다음 공연이 기다려진다.

다채롭고 자유로운 음악적 소통 SNU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5월 13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SNU 심포닉 밴드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2016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5/9~5/13)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번 공연에서는 최경환 교수의 지휘로 거슈윈, 프로코피예프 등의 작품이 연주되었고 본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플루티스트 차민경이 사회 및 해설을 맡았다.

관악 앙상블의 웅장한 스케일이 좌중을 압도하는 가운데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으로 공연의 막이 열렸다. 이 작품은 재즈의 색채를 듬뿍 띤 교향시로, 거슈윈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이어서 안석영(기악 13)의 협연으로 아르티우니안의 「트럼펫 협주곡 A♭장조」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트럼펫 협주곡으로 잘 알려진 아르메니아의 작곡가 아르티우니안이 1950년에 작곡했으며, 아르메니아 민속 음악의 선율적·리듬적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트럼펫의 풍성한 음색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면서도 장엄한 관악 합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협연자 안석영은 섬세한 기교로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다음으로 연주된 작품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프로코피예프의 서정적 음악 작업을 거쳐 발레음악으로 재탄생된 작품이다. 관현악 모음곡과 피아노 독주 모음곡 버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날 공연에서는 관악 합주를 위한 버전으로 편

곡되어 연주되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존 윌리엄스의 「Star Wars Saga」가 연주되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메인 테마로 작곡된 후 각종 광고와 드라마에 활용되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타악기와 금관악기가 빛어내는 화려한 사운드와 영화음악 특유의 극적 분위기가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며 전체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후 앙코르 곡으로 「레미제라블」 OST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잇달아 연주된 후 SNU 심포닉 밴드의 정기연주회는 막을 내렸다. 대중적이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음악적 시도가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On May 13th, amidst the warm spring breezes, the SNU Symphonic Band held their regular concert at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It was the last day of the ArtSpace@SNU (5/9~5/13) event, and at the performance Professor Kyung-hwan Choi conducted pieces by Gershwin, Prokofiev and many more.



봄바람을 적시는 전통음악의 향연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5월 1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국악과의 봄 정기연주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전통 악곡들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정악과 민속악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향연이 이어졌다.

첫 무대는 관악합주 「수제천」으로 웅장하게 시작되었다. 「수제천」은 각 장단의 길이가 다른 불규칙 장단이어서 연주 시 연주자들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곡들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연주에서는 박준형(국악 11)의 집박을 시작으로, 임혜정(국악 12) 외 33명의 연주자가 호흡을 맞춰 유장하고 깊은 선율을 성공적으로 표현해냈다.

두 번째 무대는 여창가곡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로, 김성아(국악 15), 이유림(국악 16)이 여창을 맡아 청아하고 맑은 음색으로 노래하였고 반주자들의 숙련된 솜씨가 어우러져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 무대는 「정기시나위」로, 이번 연주에서는 거문고, 대금, 피리, 아쟁, 장구, 징의 편성으로 연주되었다. 정해진 구조 안에서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선율을 풀어나가며 시나위의 특징인 즉흥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네 번째



무대는 현악합주 「뒷풍류」로,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에 굿거리를 더하여 연주하였다. 거문고와 가야금이 주가 되어 흥겨운 리듬을 구성지게 풀어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씻김굿」이 연주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기존 굿 편성에는 잘 포함되지 않았던 거문고와 해금을 더해 더욱 풍성한 음향을 만들어냈다. 세 명의 창자와 8인의 연주자가 합주와 독주를 통해 자유롭게 기량을 펼치며 마지막에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On May 12th,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s Regular Concert was held at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This performance consisted of mainly traditional pieces, however the colorful repertoire included not only Korean classical music, but also Korean folk music.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2016년 1학기 화요 음악회는 3월 15일 공연을 시작으로 6월 7일까지 5번의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1학기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이안 흡슨, 주희성, 장형준 교수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3월 15일 4시,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라벨의 「어미 거위」, 슈베르트의 「판타지」,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손을 위한 두 개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코다이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4월 26일 4시, 피아노 문익주 교수, 첼로 양성원 교수, 바이올린 크리스탈 리가 연주했다.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더해 더욱 풍부한 시간을 가졌다.

In the first semester of 2016, a total of 5 concerts were organized from March 15th to June 7th as part of the SNU Tuesday Concert program at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Taking place every Tuesday at 4pm, the SNU Tuesday Concert is a free art concert for SNU staff, faculty,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The concert aims to give audiences an opportunity to enjoy performances from promin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usicians.

Beginning in 1994 as The SNU Wednesday Concert, before changing its title and date in 1996, it has been introducing diverse Eastern and Western music to its audiences ever since.

Throughout its history the concert progra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 friendly, comfortable concert environment for audiences, allowing them to feel closer and more familiar with the music.

세 번째 화요음악회는 여러 실내악 곡들로 구성되었다. 5월 10일 4시, 바이올린 노윤정, 이경선 교수, 피아노 아비람 라이케르트 교수, 비올라 이수민, 첼로 이정란이 연주했다. 할보르센, 생상스, 말러, 슈만의 곡을 연주했다.

로 구성되어 있는 아망트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는 현악 사중주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기에 충분했다.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아망트 스트링 콰르텟팀이 꾸몄다. 하이든, 쇼스타코비치, 라벨의 현악 사중주를 연주했다. 바이올린 엄성용, 김수영, 비올라 홍지혜, 첼로 김대준으

다섯 번째 화요음악회는 6월 7일 4시, 피아노 신수정 교수, 바리톤 박홍우 교수의 연주였다. 베토벤의 「멀리있는 연인에게」,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연주했다. 1학기의 화요음악회는 아름다운 가곡과 함께 막을 내렸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씬

Art Space@SNU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Art Space@SNU 예술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Art Space@SNU는 서울대 구성원이 가진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처, 미술대학, 음악대학, 인문대학이 협력하여 기획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음악대학에서는 트롬본 앙상블, 사물놀이, 피아노 배틀 등의 공연을 준비했다. 문화관 앞과 예술복합연구동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들은 바빠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잠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씬을 주었다.

5월 9일, 예술복합연구동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막식은 굉장히 특별했다. 김정환 학생처장의 축사로 시작되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다섯 언어권의 시 낭송을 한 뒤 바로 낭송한 시를 바탕으로 쓰인 가곡들을 성악과 학생들이 불렀다. 차이콥스키의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리스트의 「내가 만약 왕이라면」 등 시가 음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귀로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예술주간 첫 번째 음악공연은 9일,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SNU 트롬본 앙상블 팀이었다. 8명의 트롬본 연주자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만들어낸 연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순식간에 모인 관중들은 곡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며 큰 환호를 보였다.

예술주간 둘째 날인 10일, 가야금 앙상블은 '아늘거리다'라는 제목으로 예술복합연구동 오디토리움에서 다양한 곡을 연주하였다. 특히 이 앙상블은 모두 신입생(국악 16 김소희 외 4명)으로 구성된 팀이라 다른 연주보다 더 뜻 깊게 다가왔다. 다양한 성격의 곡들을 연달아 연주하여 국악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5월 11일, 문화관 앞에서는 피아노 배틀이 펼쳐졌다. 피아노 2대가 야외에 놓이자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더 커졌다. 이 배틀은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들은 뒤, 관객들의 투표로 승자를 바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는 관객들의 큰 환호와 호응을 받았다.

예술주간의 피날레 공연은 13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SNU 심포닉 밴드는 최경환 교수 지휘 아래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연주하였다. 특별히 아루티우니안의 「트럼펫 협주곡 A^b 장조」를 안석영(기악 13) 학생이 협연하였다.



예술주간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SNU 심포닉 밴드는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예술주간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From May 9th to the 13th, the art event 'Art Space@SNU' was held for the second time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to us last year. ArtSpace@SNU started with the goal to share and showcase the abundant artistic abilities of SNU members. The student union and Colleges of Art, Music and Humanities collaborated and coordinated this event, with the College of Music holding various concerts from the Trombone Ensemble, Samulnori, and an exciting Piano Battle among other excellent performances.

제 10회 대원 음악상 수상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대원 음악상 제 10회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대상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민, 특별공헌상은 피아니스트 신수정에게 돌아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을 지낸 음악가이자 교육자로 국내 음악계에 공헌했다. 피아니스트 신수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1세대 음악인으로서 다수의 피아니스트를 길러내며 한국 피아노계의 역사를 써왔다.

Violinist Min Kim, former dean of SNU's College of Music, won first prize at the 10th Daewon Music Awards sponsored by the Daewon Cultural Foundation. Another award winner included Pianist Soo-Jung Shin who received the Special Contribution Award. Daewon Cultural Center gives this award to recognize the outstanding contributions of particular musicians to the field of classical music in Korea.



대원 음악상 수상자는 음악 전문가 100여명의 추천과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시상식은 2016년 3월 7일 오후 6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대원문화재단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인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예술단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동, 그 시작으로 기악과 김귀현 교수

1982년부터 2016년까지, 34년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기악과 피아노 전공 김귀현 교수님이 올해 퇴임을 맞이했다. 동시에 음악대학의 학장 자리의 퇴임이기도 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 8월, 인터뷰를 위해 김귀현 교수님을 만났다. 오랜 시간의 교수직을 내려놓는 소감이 어떠한지 물었다.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얻은 건 음악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이 느낄 감(感)이고, 느낌이 움직일 동(動)인데, 느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서 파로 가도 감동이에요.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동받고 감격시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유학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귀현 교수님은 필리핀 유학 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밤낮없이 공부하고, 음악의 아름다운 구조에 관심이 생겨 매번 레슨을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 선생님은 한 번도 되물음에 대한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무릎을 탁 칠 때까지 설명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선생님 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그저 알 때까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면,
“20시간을 연습해라- 인데, 그정도로 ‘몰두’해야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맛을 다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배우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릎을 몇 번 치는 날이 와야 해요. ‘산을 넘고 또 넘고.’ 이런 말이 있는데 한 산을 넘지 않으면 뒷산이 보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를 넘어야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멀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게으르라는 것이 아니라, 일찍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가끔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소녀같은 웃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따뜻한 기억, ‘감동’을 찾아가는 김귀현 전 학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Since 1982, pianist and professor Kwi-Hyun Kim has taugh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ld the position of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This year, however, after 34 years of faithful service in education, professor Kim has retired.



음악적 자기이해 그리고 조화 기악과 브루스 배리 (Bruce C. Barrie) 교수

봄의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풍경이 아름다운 5월 19일,
기악과 트럼펫 전공 신임교수로 부임하여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펼치고 있는
브루스 배리(Bruce C. Barrie)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브루스 배리 교수님은 쾌활하고 밝은 에너지와 자상한 웃음으로 방문을 환영해주셨다. 그는 프린스턴 바흐 페스티벌(Princeton Bach Festival) 등 다양한 무대에서 솔로 트럼펫 주자로 활약했으며, 그 음악적 역량과 이력을 인정받아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먼저 서울대에 부임한 소감, 그리고 서울대에 대한 인상을 묻자 브루스 배리 교수님은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며 “굉장히 기쁘다.”고 답했다. 서울대에서 받은 첫 인상으로 “아주 큰 대학교”라는 특징을 꼽으며, 서울대의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대에서 만난 동료 교수진 모두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음대 외의 다른 단과대학 교수님들과의 만남도 흥미로웠어요. 작은 음악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라는 크고 역동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서울대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서울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돋보였다.

3월에 부임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레슨 할 때 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해 코멘트를 해주수록 학생들도 내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좋은 대답을 한다.”며, 불편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난관을 어느 정도 극복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브루스 배리 교수님만이 가진 음악관과 음악 교육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좋은 음악가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형적인 트럼펫 연주자들은 악기를 큰 소리로만 연주할 뿐, 주변을 잘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좋은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조화를 지혜롭게 모색해야 한

Beneath the warm sunshine of spring, a delightful interview with trumpeter and newly appointed professor Bruce C. Barrie took place at his studio on May 19th. As an excellent performer, leader and musical guide, we have high hopes to see professor Bruce C. Barrie's influence guide music students at SNU to find their own path in their music careers.

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그는 좋은 음악가를 “음악적 형사(musical detective)”에 비유하면서, “음악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자 하는지 명료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돕는 것이 가르치는 일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하며 음악 교육자로서 지닌 신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전할 조언을 청하자, 브루스 배리 교수님은 “내가 그런 조언을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음악가들은 적당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제각기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음악적 삶을 같이 펼쳐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삶에는 많은 변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인지하여 과감히 선택하고, 전념할 수 있어야 해요. 한 곳에 끈질기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선택과 전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제가 서울대에서 받은 또 하나의 좋은 인상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이 택한 길에 잘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형사처럼 자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브루스 배리 교수. 그에게서 투철한 음악관과 교육적 신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훌륭한 연주자로서, 또 음악 지도자로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삶을 탐구하고 모색하는데 브루스 배리 교수님이 발휘해줄 크나큰 영향력을 기대해본다.



다섯 색깔이 하나로 Libera Brass Quintet

2015년에 결성된 서울대학교 여성 금관 앙상블인 리베라 브라스 퀸텟(Libera Brass Quintet)은 트럼펫 안석영(기악 13)과 조은별(기악 14), 호른 김영운(기악 13), 트롬본 최슬기(기악 14), 튜바 박제연(기악 14)으로 구성되어 있다.



Libera Brass Quintet is a brass ensemble group made up of female SNU students. As their group name “Libera” (to make free) suggests, performers have liberal and distinguished techniques. There are high expectations for these performers to become a well-regarded brass ensemble in the future.

이들은 팀명인 'Libera(자유화하다)'의 뜻에 부합하게 자유롭고 차별화된 테크닉과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 창단 연주회를 했고 올해 2월에는 강남 윈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

또한 올해 5월, 한국음협에서 주최한 해외파견 콩쿠르 실내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성 금관 앙상블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되는 팀이다.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악과 관악전공 안석영, 조은별, 김영운, 최슬기, 박제연으로 구성된 금관 앙상블 리베라 브라스 퀸텟입니다.

언제부터 팀을 결성하여 연습하셨나요?

처음에는 교내 실내악 실기를 준비를 위해 2014년 말에 결성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실내악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성 브라스 팀이 많이 없어 여성 팀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2015년에 창단 연주회를 연 후 'Libera Brass Quintet'로 계속 활동 했습니다.

곡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일단 안석영이 곡을 모아 오면 그 중에서 팀원들이 함께 곡을 선정합니다. 청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곡을 고르다 보니 대체로 재즈풍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브라스 팀이라 사운드가 약할 거라는 편견을 깨려고 일부러 에너지 넘치는 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고 하시나요? 연습하다가 갈등이나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는 학교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선후배 관계여서 어렵지 않은지 많이 물

어시는데, 선후배가 아닌 같은 팀원으로서 서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나는 연주 혹은 곡이 있으시다면?

2015년 창단 연주회의 마지막 곡 '튜바 타이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유튜브 조회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웃음) 저희가 원하던 청중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이면서 저희도 즐길 수 있던 무대여서 기억에 더 남습니다.

이번 해외 파견 콩쿠르 수상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내악 콩쿠르를 처음 나갔는데 첫 콩쿠르에 1위로, 그것도 다른 실내악 팀들과 압도적인 차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신 분들과 많은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팀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안석영 : 리베라는 음악을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팀
- 조은별 : 리베라는 내 가족
- 김영운 : 리베라는 터닝 포인트
- 최슬기 : 리베라는 나를 성숙하게 만든 팀
- 박제연 : 내가 리베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금관악기 연주자'하면 대부분 남자를 먼저 떠올리는데, 저희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한국의 금관 오중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팀이 되고 싶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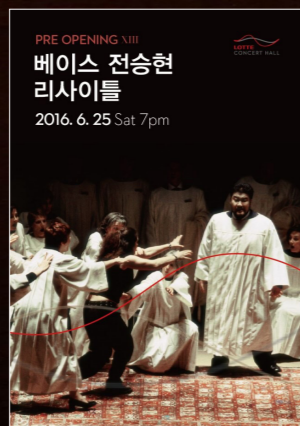
진정한 표현을 위한 끝없는 노력

전승현 교수

6월 25일에 있었던 '잠실 롯데 콘서트홀 프리오프닝 X III - 베이스 전승현 리사이틀' 이후, 전승현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다. 교수님께서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방문에 응해주셨다.

지난 25일에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잘 마치셨는데요, 이날 리사이틀에서는 슈베르트의 낭만가곡에서부터 뮤지컬음악, 한국 시를 가사로 한 예술가곡, 그리고 민요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작품들을 다루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선곡에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선곡 자체에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단지 이전부터 줄곧 부르고 싶었던 작품들이었어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 무대에서 현대적 어법의 작품 연주가 부진한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대 작곡가들의 고유한 색채가 정작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하여 음악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어법으로 쓰인 작곡가 이영조의 「운동주 시에 의한 네 개의 노래」를 선곡에 포함시킨 것이지요. 기존에 운동주의 시를 가사로 한 가곡은 상당수가 작곡되었지만 이영조의 곡은 그 작품성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참신하고 신선한 작품을 무대에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국내 최초 '빈야드 스타일' 클래식 공연장인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하신 소감은 어떠하신가요? 기존에 공연하셨던 다른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리허설 때에도 느꼈고 공연을 직접 하면서도 체감했지만, 콘서트홀이 규모도 크고 섬세하게 설계되어 공연장에서의 울림이 참 좋았습니다. 또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에 철칙이 있는데, 시선을 멀리 두며 당당한 자세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객석에 있는 수천 명의 그 관객들과 대등하게 소통하는 연주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기운을 받으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평소 독창회를 앞두고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리사이틀에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연주할 작품을 해석하고 연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리사이틀을 준비할 때 가장 긴 시간을 들이는 과정은 단연 '연습'이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마치 도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악보가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작품의 음악적 맥락과 함의를 연구하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골랐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을 잘 해석해 내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의 또 한 가지 신선했던 점은, 연주회에서 반주를 맡아주신 피아니스트 박은식 교수님의 독주 무대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주자'라는 명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지 '반주자'와 '독주자'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반주자' 대신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하지요. 이번 리사이틀에서 박은식 교수님의 독주 무대 총 세 작품을 포함시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피아노 독주 무대뿐 아니라, 제가 노래하는 무대에서도 '반주를 받는다'보다는 '피아노와 듀오로 연주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의 존재감과 성악과의 자유로운 주고받음이 무척 만족스러운 무대였고요. 박은식 교수님은 저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인연이 깊을뿐더러 음악적인 교류를 두텁게 나눠 온 사이이기도 합니다.

줄곧 연주자로서 주로 해외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펼쳐오셨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신 교수님께서 느끼실 때, 연주자와 교육자의 길을 병행하실 때의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단점은 없습니다. 연주자로서의 삶도, 음악 교육자로서의 삶도 저에겐 어떤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저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것을 '출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러 가는 것'이고, '학생들 가르치러 가는 것'이죠. 학생들 노래 가르치는 것도 또한 제가 노래하는 삶의 한 방식일 뿐이고,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어서, 또 제가 가진 노래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끝으로 서울대 음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를 닦아라."라는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든 악기 연주든 작곡이든, 음악을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과정과 다를 것이 없어요. 수많은 번민과 시련을 감내해야만 하고, 한 작품을 표현해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감행해야만 하죠. 그 과정에서 긴 시간 인내하며 갈고 닦은 끝에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지점이 '도 닦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연주자로서 늘 느끼며 사는 부분이기도 하고, 레슨 하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악가로서 음악을 대할 때 도 닦는 자세로 임해서 경지에 오르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After the Bass performer Seunghyeon Jeon's recital at the 'Jamsil Lotte Concert Hall Preopening XIII' on June 25th, we visited Professor Jeon's studio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the Professor greeted us with great enthusiasm.



아름다운 순간들을 공감하는 윤혜리 교수

3월 9일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열린 윤혜리 교수님의 플루트 독주회 이후,
연구실에서 다시 뵈 수 있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After Professor Hye-ri Yoon's solo flute recital in the IBK hall at Seoul Art Center on March 9th, we visited the Professor at her studio at the College of Music. Despite the Professor's busy schedule, she still made time for an interview, showing the sincere affection she has for her students.

안녕하세요. 윤혜리 교수님. 지난 3월 9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플루트 독주회를 하셨습니다. 이번 독주회는 특히 프로그램 선정부터 공연장 선정까지 모든 기획을 직접 맡으신 공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독주회의 모든 기획을 직접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번 독주회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독주회를 기획하면서 처음부터 장형준 교수님과 같이 연주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장형준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플루티스트셔서 그동안 저와 여러 번 플루트 레퍼토리에 대해 의논을 했었기에 이번 독주회는 꼭 장 교수님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라이네케 운디네의 소나타가 저와 선생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라이네케의 발라드와 오보에 트리오 연주를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독일 낭만 작곡가인 도흐나니와 독일 Kuhlau 콩쿠르 심사 때 처음 접해본 프렐링의 곡이 흥미로워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주회에서 라이네케의 '오보에와 호른, 피아노를 위한 3중주'를 오보에가 아닌 플루트로 연주하신 점이 색달랐습니다.

많은 음대 교수님들께서 모두 훌륭한 연주활동을 하고 계셔서 같은 동료이면서 대선배이신 연주자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독주회에서 꼭 트리오 작품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네케 소나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다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이네케 오보에 트리오를 플루트 버전으로 욕심내어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곡한 뒤 김영률 교수님께 호른 파트를 부탁드린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배 연주자 분들과 연주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리오 연주가 제게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연주자이자 교육자로서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이자 연주자를 꿈꾸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솔리스트로서,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서만 음악을 전달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열정과 사랑을 함께 공감하고 제가 배웠던,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가르치고 니눌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교류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공감하는 연주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2007년 고베 국제콩쿠르 심사를, 2015년에는 Kuhlau 콩쿠르 심사를 하시고, 2017년에도 Kuhlau 콩쿠르 심사에 초청받으셨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항상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이 분야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분야는 절대 짧게 볼 수 없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악은 이 세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훈련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음악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최고의 음악대학 학생인 만큼 자신 있게 미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서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학술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의 2013년 선정과제에 따라 ‘음악을 통해 유럽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형성되는 양상’에 관해 서양음악연구소에서 3년 동안 진행한 연구를 보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서양음악연구소장 이석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순서로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의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K팝”에 관한 초청 발표가 있었다. 그는 K팝을 글로벌 팬덤 현상, 젊은 세대의 문화, 동아시아 문화 집합점, 성별 및 인종, 그리고 한국적 특성 등 총 다섯 가지의 시각으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다음 초청 발표 순서로 중앙일보 정재숙 문화전문기자가 “유럽과 국내 언론의 한국음악 보도에 나타나는 온도차”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과 유럽 일간지의 음악 보도 성향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때 나타나는 온도차를 지적하였다.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semina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was held at the SNU Cooperative on April 30th.

The seminar was held to discuss and report upon the progress of a research project on 'how Korean national image is shaped by music in Europe' a selected subjec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s academic work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began in 2013.

4월 30일,

서울대학교 220동 종합교육연구동에서 “음악과 국가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서양음악연구소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다음으로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원들의 연구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서의석, 토마 바께(Thomas Bacquet) 연구원이 한국 관련 프랑스어 학위 논문 스무 편 가량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이장직 연구원이 “한국에서 창작의 영감을 발견하는 유럽의 작곡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다음 순서에서는 신혜수 연구원이 음악이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연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총괄로 연구에 참여한 컴퓨터공학과 권오철 박사의 발표로 학회가 마무리되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그 업적을 모두 담기 위하여: 이중 데이터 모델을 위한 복합DB 설계”라는 제목 하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메커니즘과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서양음악연구소는 이러한 토대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난 3년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보다 풍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SMPC 학술 세미나

5월 7일, 서울대학교 220동 대형강의실에서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KSMPC)의 제 56차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학회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학생 세 명의 발표로 이루어져, 음악인지과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소식을 소개하였다.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이경면 회장의 인사말로 세미나의 막이 열렸다. 그는 “어떤 학문 분야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차세대 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지 지켜보면 된다.”고 언급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학회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본격적인 첫 발표 순서로 박종화(작곡 13)가 전공별 음악 정보 인지 능력 차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 정보의 인지와 관련된 음악 교육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배다혜(자연대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발표에서는 각성 수준이 템포의 재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성 수준’과 ‘템포의 시간적 변화’를 변인으로 실시한 비교 실험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여은(석사 이문 16)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사전 청취’와 ‘음악의 텍스처’라는 두 변인이 초견 연주의 능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진행 중인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비전공 연주자들의 초견 연주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추가 연구의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날 학회는 음악인지과학 분야 차세대 학자들의 학술적 문제의식과 시도를 생생하게 소개한 데에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KSMPC와 신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질 한국 음악인지과학계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On May 7th, the 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KSMPC) had its 56th academic seminar at the SNU Cooperative. One undergraduate student and three graduate students gave presentations introducing research findings from new researchers who are leading the next generation of music cognitive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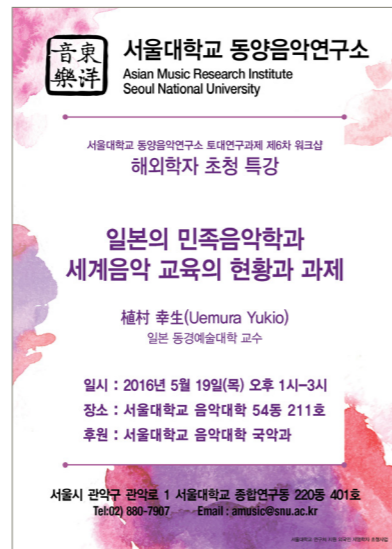
동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워크숍

5월 19일, 음악대학 54동에서 동양음악연구소의 토대연구 과제에 따른 제6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 저명학자 우에무라 유키오(일본 동경예술대학 교수)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는 현재 동경예술대학 음악학부 악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의 민족음악학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를 초청해 일본 민족음악학자들의 연구 동향, 방법론, 차후 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본교 학자 및 학생들에게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그는 이날 워크숍에서 “일본의 민족음악학과 세계음악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 강연은 다나베 히사오 등 일본의 민족음악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른 연구 변천 및 오늘날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는 각 연구자들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본 민족음악학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음악 교육에의 적용 및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일본의 연구 사례는 한국에서의 민족음악학의 발전 및 사회·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서울대 국악과와 동경예대 음악학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On May 19th at 1pm, at the College of Music's building 54, a workshop was held by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for the 6th time. This workshop had a guest lecture by renowned Japanese researcher Uemura Yukio (Professor at Tokyo University of Arts).

동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학술 세미나

5월 20일, 예술복합동 오디토리엄에서 동양음악연구소의 토대연구 학술회의가 열렸다.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구축”에 관한 토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는 동양음악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차후 향방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와 한국국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학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발표와 그에 대한 논평,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임혜정 연구원(동양음악연구소)이 사회를 맡았고, 이상규 교수(전주교대 음악교육과)가 좌장으로 전체 논의를 이끌었다.

김우진 교수(동양음악연구소장)의 개회사와 김영운 교수(한국국악학회)의 인사말로 전체 학회가 시작되었다. 1부에서는 임미선 교수(단국대 한국음악과)의 “20세기 풍류방 문화의 지형과 역사적 변동”에 관한 발표, 권도희 연구원(동양음악연구소)의 “20세기 전반기 산조와 관련 기악 갈래의 장단 구성법”에 관한 발표, 그리고 성기련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의 “이보형 채록 판소리 자료의 연구사적 가치 및 특징”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2부의 시작은 김영운 교수의 “강릉 지방



향토민요의 전승 양상”에 대한 연구 보고였다. 다음으로 이상규 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부)와 최상혁 씨의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DB 구축을 위한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소개와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동경예대 음악학

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고이즈미 후미오의 한국음악 조사와 그 음원자료에 대한 예비적 보고”라는 제목의 연구를 보고하였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전체 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회는 민속악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 자료를 발굴하는 “토대연구”의 가능성과 학문적 가치를 위해 한국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이날 논의에서는 민속악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할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혁신적인 방법론 개발에 따른 향후 민속악 현장조사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On May 20th,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held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Art Research Center's auditorium.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This academic conference was co-sponsored by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to develop further plans and to gain new direction by organizing and reviewing current research processes.

빈 국립음대

6월 23일, 빈 국립음대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의 학장 울리케 지흐와 부학장 크리스찬 마이어가 음악대학을 방문하였다.



1817년 문을 연 빈 국립음대는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대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 빈 국립음대와 서울대학교는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귀현 전임 학장, 전상직 학장, 신수정 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환학생 학점 인정 제도와 MOU 학점교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예술관 콘서트홀과 대연습실 등 학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On June 23rd, dean Ulrike Sych and vice president Christian Meyer of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 visited the College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wo schools have been interacting and cooperating continuously since they signed an MOU. At this visit, they particularly discussed their shared aims and direction for further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태국 PGVIM

5월 20일 오전, 태국 PGVIM (Princess Galyani Vadhana Institute of Music)의 관계자가 음악대학을 방문하였다.



PGVIM은 2007년에 설립된 음악학교로,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행사를 통해 태국의 클래식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귀현 전임 학장, 김승근 국악과 교수, 김규동 작곡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PGVIM, 두 학교 사이의 장기적인 교류와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On May 20th, a member of the Princess Galyani Vadhana Institute of Music (PGVIM) in Thailand visited the College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ong-term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GVIM and SNU was discussed at this meeting.

영국 버밍엄 음악원

지난 한 학기 동안 음악대학에는 버밍엄 음악원(Birmingham City University)으로부터 총 두 차례의 방문이 있었다.



3월 23일 오전에 버밍엄 음악원의 줄리언 로이드 웨버(Julian Lloyd Webber) 학장이 음악대학을 방문하여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람베르토 코치올로(Lamberto Coccio) 부학장이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서는 전상직 학장, 이신우 부학장, 최우정 작곡과 교수가 동석하여 향후 두 학교 간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On March 23rd, Julian Lloyd Webber, Dean of Birmingham City University, visited and gave a masterclass at the College of Music. Vice Dean Lamberto Coccio also visited on July 4th.

오페라연구소 무대의상 기증 고 김일규 단장



지난 6월 1일, 오페라 상설무대의 대표 고 김일규 단장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위해 무대의상을 기증하였다. 후학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환경을 만들어주자 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전문 무대의상 수십 벌이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에 전해졌다.

고 김일규 단장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여 제 1회 “국민음악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 한국오페라 50주년 기념축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 성악계에 굵은 발자국을 남겼다.

On June 1st, following the wishes of the deceased head of Opera Permanent Stage Ilkyu Kim, a collection of stage costumes were donated to the College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kind donation follows Ilkyu Kim's wish for young students of the present and future to have access to a better performance environment. Dozens of professional stage costumes were delivered to the SNU Opera Center as part of this generous donation.

음악대학 발전기금 기부 신수정 전 학장



신수정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 음악대학 연습동 신축 사업을 위해 2016년 3월 8일 음악대학 발전기금으로 30,000,000원을 기부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1967년 서울대학교 학술 연구재단 설립 및 정관 재정을 시작으로 기금 조성을 통해 단과대학과 대학원, 부속 기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장학 사업, 학내 인프라 확충 등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On March 8th in 2016, Professor Soojung Shin donated 30,000,000 won in a fund contributing to a new construction project, to build a new music practice building at the SNU College of Music.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단위 :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재)신일문화재단	학술연구시설등		20,000,000	2015.11.27 ~ 2016.08.17
(주)상지인터내셔널	학술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10,000,000	
강선하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김규동	학술		450,000	
김미영	시설물		800,000	
김수미	학술연구시설등		180,000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700,000	
김유석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500,000	
김유석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김희건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박미혜	학술	태리장학금	4,500,000	
박영호	학술연구시설등		700,000	
성악과 동창회	학술	성악과동창회장학금	5,000,000	
손주수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800,000	
송정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400,000	
신수정	학술연구시설등	음악대학 연습동 신축사업기금	30,000,000	
심새미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450,000	
양경숙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2,700,000	
유용철	학술연구시설등		800,000	
이돈용	학술연구시설등		900,000	
이성초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이신우	학술연구시설등		450,000	
이지영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900,000	
이진우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인송문화재단	학술	장학	6,000,000	
정일영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300,000	
정희천	학술연구시설등		700,000	
정효성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000,000	
제갈혁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채은경	학술연구시설등		333,000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900,000	
최량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최원석	학술연구시설등		1,200,000	
최윤진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510,000	
최지연	학술연구시설등		200,000	
터키이스탄불문화원	학술연구시설등		200,000	
풍강산업(주)	학술연구시설등		100,000	
홍세린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400,000	
홍순옥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500,000	
홍순옥	학술연구시설등		300,000	
후원자00414	학술연구시설등		100,000	
후원자00488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후원자00490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후원자00494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후원자00504	학술연구시설등		400,000	
총합계			101,873,000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 신용카드, 자동이체(CMS), 지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02-880-8004)으로 연락 주십시오.

2016학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성악과

성악	길병민(13)	제 12회 2016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성악부문 5위 제 23회 2016 KBS 한진음악콩쿠르 성악부문 은상
	유연호(13)	제 21회 음악춘추콩쿠르 성악남자부문 1위
	김수(12)	제 21회 음악춘추콩쿠르 성악여자부문 1위
	김초롱(13)	제 21회 음악춘추콩쿠르 성악여자부문 3위
	박선우(13)	제 65회 이화경향콩쿠르 성악여자부문 3위
	정인호(13)	제 42회 중앙음악콩쿠르 성악남자부문 3위 제 22회 수리음악콩쿠르 성악남자부문 2위

기악과

피아노	노예진(박)	2016 FRIULI VENEZIA GIULIA (FVG)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2위
	박연민(석)	Le 9e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a mayenne 1위
	노한솔(석)	15th Piano Campus International Competition Annecy Classic Festival Prize
	노예나(13)	8th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iovani Musicisti - Città di Treviso 2위
	우용기(14)	제 23회 KBS·한진 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1위
	최수안(15)	2016 브람스협회 브람스 콩쿠르 대학부 1위
	박예람(15)	제 35회 해외파견콩쿠르 2위
	한주영(15)	제 42회 중앙음악콩쿠르 3위
	김지영(15)	2016 중앙음악콩쿠르 3위
	김정진(16)	제 46회 SAMIC SEIER 콩쿠르 1위 제 22회 수리음악콩쿠르 대학일반부 2위
	김강태(16)	제 33회 부산음악콩쿠르 1위
	신효진(16)	제 22회 수리음악콩쿠르 대학일반부 입상
	전혜인(16)	제 19회 한국쇼팽콩쿠르 일반부 2위
	바이올린	김성문(15)
김영지(15)		제 42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제 23회 KBS·한진 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김은채(16)		2016 Novosibirsk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2nd prize & 2016 Presidenta del la Escuela Superior de Musica Reina Sofia Premio Especial Prize 제 23회 KBS·한진 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은상
비올라	정승아(15)	제 35회 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비올라 부문 3위
첼로	남아연(14)	제 42회 중앙음악콩쿠르 3위
클래식기타	안용현(16)	제 35회 해외파견 콩쿠르 2위
관악	강혜영(15)	제 35회 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3위
	김수영(15)	제 35회 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3위
	서희륜(15)	제 33회 부산음악콩쿠르 3위
	한이제(14)	2016 스위스 Muri Competition Special Prize U21 제 23회 KBS·한진 음악콩쿠르 관악부문 금상

Brovi Prize Winners

국악과

국악	추현탁(12)	제 26회 KBS국악대경연 대상
	김수민(12)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해금 일반부 금상 제 1회 부암국악경연대회 대학, 일반부 해금 부문 1위
		제 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은상 (현대자동차그룹사장상)
	이연진(12)	제 42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김보림(13)	제 16회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일반부 종합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김민주(13)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 일반부 금상
	문현진(13)	제 1회 부암국악경연대회 대학, 일반부 거문고 부문 1위
	박수범(14)	제 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주)문화방송사장상)
	윤지현(14)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가야금 일반부 동상
	박나영(14)	제 26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경상남도지사상)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가야금 일반부 금상
	문속(14)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 일반부 은상 제 1회 부암국악경연대회 대학, 일반부 거문고 부문 2위
		제 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거문고 부문 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정하은(14)	제 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아쟁부문 동상 (국립국악원장상)
김예지나(14)	제 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아쟁부문 동상 (국립국악원장상)	
	제 32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	
조수황(16)	제 36회 온나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은상 (현대자동차그룹사장상)	
	제 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아쟁 부문 은상 (현대자동차그룹사장상)	

작곡과

작곡	지현주(석)	제 26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입선
	이성현(14)	제 42회 중앙음악콩쿠르 작곡부문 1위

국내 또는 해외 동문 소식

피아노	양윤희(03)	2016 International Mozart Competition 2위
	임성현(11)	제 22회 수리음악콩쿠르 피아노 대학 일반부 3위
	홍유진(12)	제 4회 "Music at Cenacolo" 국제음악콩쿨 1위
2016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Slobozhanska 3위		

편집위원 한마디



김하은

음악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 소식지!



이미경

한 권의 소식지에 담긴
수많은 손길! 감사함을 담아서.



이지현

새로운 경험이 가득했던 첫 소식지!
다음엔 더 열심히...!



이예지

정성으로 맺어낸 소중한 결실



음악대학소식 제18호 | 2016년 9월 발행

발행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상직

편집위원장

· 김규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

- 이예지 작곡과 이론전공
- 김하은 작곡과 이론전공
- 이미경 작곡과 작곡전공
- 이지현 국악과 작곡전공

영문 번역

· 김미혜 작곡과 작곡전공

사진

· 249 스튜디오

디자인 · 인쇄

· (주)다모아피앤디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8

Publisher

· Prof. Sang Jick Jun,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

· Prof. Gyoo Dong Kim,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

- Ye Ji Lee, BM course in Musicology
- Ha Eun Kim, BM course in Musicology
- Mi Kyoung Lee, BM course in Composition
- Ji Hyun Lee, BM course in Korean Music

English Translation

· Mi Hye Kim, MM course in Music Composition

Photo

· 249 Studio

Design & Printing

· DAMOA p&d



음악대학 소식

Autumn

2016. Vol. 18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